



| 2013년 주님의교회 표어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 : 1)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 : 15

함글함글

| 오늘의 말씀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_ 약 1 : 27

2013년 2월 17일 주일 제 314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글함글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공간 증축

5층 규모로 3월 착공, 10월에 준공될 예정



2013년 증축될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 공간의 투시도. 지금의 정문 옆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족한 교육 공간 위한 대안
1, 2층 도서관, 3, 4층 교실,
5층은 다목적 홀로 사용

정신학원에 새로운 다목적 교육 공간이 들어선다. 지금의 정문 옆 자리, 정신여중 교사와 연결되는 공간에

도서관과 교실 및 다목적 홀로 구성된 새로운 건물이 증축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제직회에 보고된 “다목적 교육공간 건축 계획”에 의하면,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건축면적 507.73평방미터, 연면적 2,414.88평방미터 규모의 총 5개 층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완공될



다목적 교육공간의 위치. 대강당과 마주하고 있는 정신여중 교사에 연결되어 건축된다.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1층은 고등학교 도서관, 2층은 중학교 도서관, 3~4층은 교실, 5층은 다목적 홀로 활용된다.

지난 몇 해 동안, 부족한 교육 공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당연히 이 모든 논의는 주님의교회가 들어서 있는 정신학원과의 교감과 합의가 필요한 일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중 다목적 교육 공간을 신축하는 안이 2012년 11월 7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1월 18일 장로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2월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설계안을 바탕으로 정신학원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세부 설계안이 확정된 것이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3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3월 18일 착공, 10월 31일 준공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교회 영상장비 교체 작업진행

최첨단 HD급 선명한 화면으로 생생한 중계 가능할 듯

주님의교회 영상장비가 새로 교체된다. 그동안 사용했던 구형의 방송 장비와 카메라 등 영상 장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았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그동안,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회의 미디어 수준은 풀 HD급으로 발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공중과 방송도 HD급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된 바 있다. 주님의교회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노후된 방송 장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번 장비 교체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이다. 모든 영상 장비와 편집기, 스

크린 등을 일반 텔레비전 영상에 못지않은 고화질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또한 본당 내부에 로봇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 등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스크린도 종래의 4:3 화면에서 16:9 화면으로 교체되며, 본당과 중, 소예배실 간 실황 중계가 가능하도록 연결된다. 이번 교체는 주님의교회 예배와 정신학원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2월 말 봄 방학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교회 사역 일정

- 예천사 개강 : 2/19(화) 저녁 7시 30분, 중예배실
-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2/22~23(금~토) 오후 4시 30분 출발, 광림비전랜드
- 양육클래스 개강 : 3/5(화)
- 겨자씨 인도자 모임개강 : 3/6(수)
- 겨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 3/8(금)
- 늘푸른 대학개강 : 3/12(화)
- 교육목회원 봄맞이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회
 - 유년부 : 3/2(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유년부실 외
 - 초등부 : 2/16(토) 오전 9시 ~ 오후 8시, 초등부실 외
 - 소년1부 : 2/23(토) 오전 9시 ~ 오후 8시 초등부실외
 - 소년2부 : 2/23(토) 오전 9시 ~ 오후 8시, 소년부실
 - 중등부 : 2/22(금) ~ 24(주) 실촌수양관
 - 고등부 : 2/17(주) ~ 19(화) 두밀연수원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2

상담코너 (의학)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사건



주후 70년 디도(티투스) 장군의 로마군에 의해서 마지막 함락당하는 예루살렘 성읍

2천년 장구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에 의한 상처와 잿더미가 된 폐허에서 시작되었다. 보잘 것 없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퍼져 나가면서 죽음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待望)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은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중해 연안의 정치 군사적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 권력자들에게 비친 기독교는 유대종교의 한 작은 분파에 불과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한 유대교의 작은 분파운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을 파괴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A.D.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다. 즉 로마의 젊은 장군 티투스(Titus)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기독교 역사는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은 초기 기독교의 사도 시대기간에 기독교 운동의 중심도시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이 로마군대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전통에만 의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기독교는 지중해 연안 지역을 향한 그 첫 번째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순례의 길을 떠난 원시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지중해 연안은 더 이상 유일신적(唯一神的)인 유대교의 전통이 종교적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엄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헬라철학과 더불어 광범위한 다신교 전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종교적 공용어는 헬라어(Greek)가 되었으며, 그들이 당장 확립해야 할 신학체계는 헬라철학의 논리와 용어로 검증될 수 있어야 했다. 모세의 율법과 다윗 왕조의 역사적 전통에 익숙한 그들에게 플라톤 철학은 대단한 사상적인 도전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급격한 기독교 내부의 신학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 바로 A.D.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사건인 것이다. 이번에는 역사적인 예루살렘 함락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A.D. 66년경 로마의 압제와 혹심한 세금징수에 저항하는 유대인의 켈기가 가이사라(Caesarea)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무리한 세금징수와 로마황제에 대한 숭배 강요는 유대인들의 무력 저항운동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초기 기독교 박해자는 저 유명한 네로 황제의 특명을 받은 베스파시안(Vespasian, A.D. 9-79년) 장군이다. 그는 6만 최정예 로마군대를 이끌고 전략적으로 먼저 지중해 동부 연안의 항구도시를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을 향해 동진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 베스파시안 장군이 네로를 이어 로마 황제로 등극함에 따라 그의 아들 티투스(Titus) 장군에게 예루살렘 공격의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주후(主後) 70년 4월부터 시작된 로마군대의 예루살렘 공격은 그해 9월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유대교의 총본산이자 이제 겨우 태동을 시작한 기독교의 새 보금자리였던 예루살렘은 다시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하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하지만 사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24:1-2). <이강찬 목사>

* 다음호 예고 :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교회사가들의 기록과 마사다 항전사건

Q 하나님의 축복아래 태어난 우리 아이가 드디어 3월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술하게 잔병치레로 병원을 드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취학 전 필수 예방 접종 세 가지(PD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는 물론 접종 해주었겠지요? 이 세 가지는 단체생활로 인한 전염병의 전염을 막아주는 중요한 예방접종으로 이들의 접종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혹시 첫 돌 무렵 수두 접종 후에 앓은 적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때 앓지 않은 자녀들은 수두 재접종을 권합니다. 수두에 걸리면 적어도 1주일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등하교시에는 학교 근처의 군것질 거리들을 먹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불량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기왕이면, 급식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 주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평소에 골고루 먹는 훈련을 시키면 올바른 식습관형성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입학 후 2주경이 되면 코흘리개 신입생들이 이런 저런 증상을 가지고 하나 둘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봄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이가 많이 나므로 너무 얇게 혹은 두껍게 입히면 체온유지에 무리를 초래하여 면역기능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내의를 입혀서 체온 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더우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를 입혀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40회>

聖經的(성경적)의미

인생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toil). 즉 가난하고 궁핍하며 피로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곤고함. 사회적인 역경과 시련.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좇는 성도의 필수요건이요 악인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때로는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다. 범죄와 타락, 교만과 우상숭배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주어지기도 한다.

苦難 (고난, suffering)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 : 1)

文字的(문자적)의미

★苦(쓸 고, 괴로울 고) : “식물”을 상징하는 艸(풀 초)의 변형체 卩(초두머리)에 “오래됨”을 표현한

古(옛 고)를 결합시켜 <풀이 자라나 오래되면 쓴맛이 난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인생의 쓴맛인 “괴로움”의 의미도 되는 것이다.

★難(어려울 난) : “뿔”의 뜻이 있는 隹(진흙 근)의 변형체에 “작은 새”를 의미하는 隹(새 추)를 결합하여 <진흙에 빠진 새는 걷기가 어렵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함글함글>

해외선교소식-헝가리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친구되어 ...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집시마을의 페렌츠 가정. 겨울 신발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꽤 길게만 느껴지는 겨울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시 마을을 심방했던 날은 봄기운이 느껴지는 제법 포근한 겨울 날씨였습니다. 11년 전부터 돌보고 있는 페렌츠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헬레나(6학년)와 산드라(5학년)

가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요. 겨울 신발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요라며 몇 적은 듯 대답하는 겁니다. 학교 가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 집시 학생들입니다. 집에 있어 본들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에라도 가면 급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나? 라고 하고 싶었

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기에 그것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기젤라는 거기에다 당장 먹을 빵과 우유가 없어서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무슨 영문인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 쉽니다.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들이 그 일로 나왔다고 하는데 별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또 울먹입니다.

이 작은 집에 모두 몇 명이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페렌츠 가정의 경우 12명이 살아갑니다. 그나마 첫째 아들인 요나쉬가 출세하여 부다페스트에서 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부모 형제를 돌볼 것을 여

러 차례 권유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집시들이 출세하면 현지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 가족을 등지게 되지요. 이점이 더욱 집시 가족들에게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런 집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위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선교사가 찾아 가서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만이 소외되고 또 작은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임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나올 때 페렌츠는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는 듯 들어가지도 않고 저희들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 다. 다음 번 심방 때에는 빵이랑 기저귀를 넉넉히 준비해서 말씀과 더불어, 저들의 고픈 배를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정재화 선교사>

우리 아이 첫 사회생활의 시작, 아기정원

“엄마, 나 오늘 아기정원 가면 안돼?” 7살 우리 아이는 매주 목요일 엄마를 조른다. 늘 즐겁게 유치원에 가지만 목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묻는다. 아기정원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아이의 마음 속에 아기정원은, 교회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았나보다. 20개월 무렵 처음 아기정원을 접한 아이는 그렇게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기정원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아이는 신



앙 안에서 자라났다.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사랑 가득한 선생님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체험했다. 6살, 처음 아이를 따로 재우던 날, 혼자자는 건 무서울 것 같다고 주저주저 하던 아이가 결심하듯 말했다. “엄마,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어떻게지? 엄마가 기린등도 쫓고, 문도 열어둘게. 바로 옆방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기도해주세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순간 아이가 기도와 예수님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자리잡고 있었던 거였다. 무서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은 아이가 참으로 기뻐했고, 나는 참 안심이 되고 든든했다. 내 아이가 가슴에 품은 주님이



게니까, 늘 함께 하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기정원을 통해 신앙 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한 아이라 주님을 기뻐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함을 감사한다. 20~40개월의 유아들은 가정보다 더 넓은 교육의 환경이 필요한 때이며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직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엄마와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형성된 엄마와 신뢰의 관계가 앞으로 아이가 형성하게 될 세계관과 신앙관, 인간관계의 토대를 이룬다.

주님의 교회 아기정원은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서 주관하는 신앙교육활동으로서 주중에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이다. 아기정원은 엄마와의 신뢰도를 형성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아기정원은 1년에 2번 봄학기(12주), 가을학기(11주) 모집한다. 올레인 11기(봄학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좋아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아이에게 세상 좋은 것 다해주고픈 것이 엄마 마음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주님과 의 귀한 만남,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기쁨으로 경험하는 주님을 아이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아기정원과 함께 시작해보자.

<김수현_아기정원 교사>

로템나무

▶ ‘로템나무’ 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

작년 9월과 10월, 8주에 걸쳐 사역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주님의교회에 속한 120여개의 사역팀이 정성 들여 준비한 홍보물을 전시하였다. 홍보물의 내용은 사역활동을 기록한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사역박람회 기간 동안 사역팀별로 지원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신청한 교인의 수가 무려 250명에 이르렀다. 사역신청자 대부분은 원하는 사역팀에 안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역팀장들께서 사역박람회가 사역팀원을 모집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기뻐하셨다.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하였지만 정작 사역의 경험이 없는 교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역과 믿음 성장은 열심히 뛰어서 힘차게 차오르면 더 멀리 뛰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와 같다고 본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일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 1:25)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바로 사역인 셈이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교우께서 사역신청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이승일>

2013년 비전트립 참가자 모집

1. 방문 국가

국가	기간	사역 내용	모집인원	팀장
베트남	7/31-8/5	의료, 집짓기, 구제사역 등	32명	김진수 안수집사 (☎ 010-2280-8858)
케냐	7/28-8/6	의료, 교육, 구제사역 등	19명	홍완식 집사 (☎ 019-391-6081)
키르기즈스탄	7/30-8/9	여름학교 운영, 자원봉사 등	19명	이재홍 집사 (☎ 010-7738-4455)
헝가리	7/22-7/31	의료, 구제, 위로사역 등	10명	김기창 안수집사 (☎ 018-364-0435)

*비행기 사정과 현지 상황, 참가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참고 사항

- ①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
- ② 한 국가만 선택 가능
- ③ 신청마감 : 3월 17일(2-3월중 교회1층 로비 신청 부스 운영)
- ④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접수
- ⑤ 신청하신 분은 추후 진행되는 비전트립 교육을(6/30, 7/7 주일 오후 3시, 2회 예정) 반드시 이수해야 함

- ⑥ 항공료, 비자 발급비는 개인부담
-교회는 사역비와 여행자 보험료지원, 학생 (대학원생 및 청년 중 직업이 없는 분 포함)은 항공료 30% 지원
※청년은 가급적 여름과 추석에 진행되는 청년부 비전트립에 신청바랍니다.

3. 신청 문의 : 해외선교분과 비전트립팀장 탁동원 집사 (☎ 011-9630-4622)

주님의교회 카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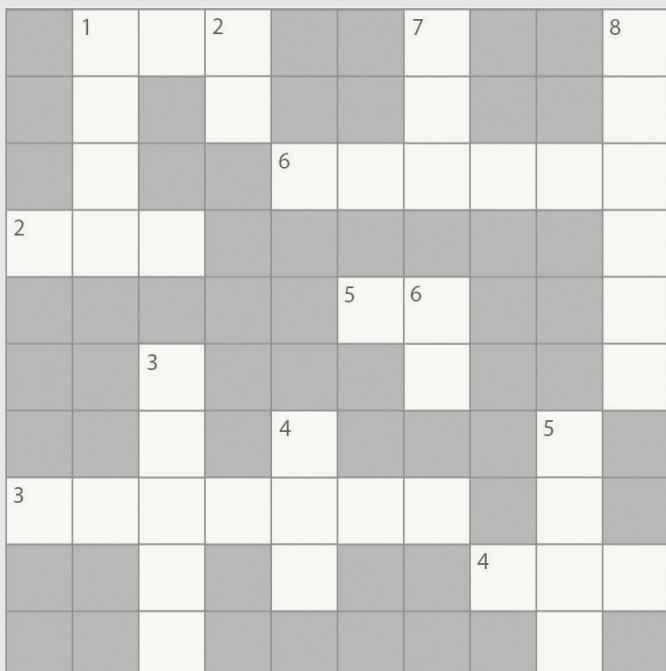


함글함글 기사를 모집합니다

- ▶ **취재기자** 교회 안팎 소식을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일을 담당합니다. 신문, 출판 편집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면 됩니다.
- ▶ **편집기자** 기사에 들어 있는 팩트를 확인하고, 글을 올바른 우리말로 다듬거나 맞춤법에 맞도록 고치고, 글의 제목을 뽑는 일을 담당합니다.
- ▶ **미술기자** 기사에 맞는 예쁜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문서 선교를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성도로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편집부

말씀따라 가로세로 - 출애굽기편



말씀따라 가로세로는 ‘십자말풀이’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마련된 퍼즐입니다. 이 퍼즐은 함글함글 팀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그 두번째로 ‘출애굽기’ 편입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가로〉 1.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처음 시내산에 거한 날 수
2. 출애굽 할 때 보행한 이스라엘의 장정 수
3.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양식과 고기
4. 모세의 누이
5. 모세는 하나님께 이것을 보여달라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그 뒷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6.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이름

- 〈세로〉 1.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한지 몇 년 만에 출애굽 하였나?
2.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우박은 몇 번째 재앙인가?
3.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 제단을 쌓은 곳
4.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5.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
6.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
7. 모세의 장인
8. 성막 휘장에 사용된 세 가지 색

〈지난호 가로세로 정답〉

- 가로 1.소돔과고모라 2.갈대아우르 3.멜기세덱 4.벤엘 5.유브라데 6.브엘세바 7.니므롯
- 세로 1.선악과 2.모압 3.하갈 4.아비멜렉 5.브두엘 6.히데겔 7.엘리에셀 8.므낏세

청년부 2013년 동계 수련회, 복음에 열광하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기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수련회 장소 사전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1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하며

기대하던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제목대로 15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 복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매드 포 가스펠 1 : 담임목사님과 대화

첫날 저녁에는 담임목사님과 대담이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은 바쁜 일정에도 양손 가득 아이스크림을 들고 직접 방문하셔서 청년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청년들은 인생의 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드 포 가스펠 2 :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조동천 목사님(신촌교회 담임)을 모시고 두 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가 선포되었고,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드 포 가스펠 3 :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공동체의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얼굴을 보고 교제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아하 그제자'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드 포 가스펠 4 :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청년부 부장단과 안수집사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직접 간식을 사와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장단과 함께 호흡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흐름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며 : 매드 포 비전

수련회를 마치며 받은 바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된 것과 결단한 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소중한 청년부 지체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이후 : 일상과 비일상의 통합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일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하에서 2월 4일(월) ~ 2월 8일(금)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시한번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수련회를 통해 발화된 복음의 열정을 삶 속에서 비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는 빌립보서를 다시 한 번 통독하며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던 사도바울의 외침을 따라 청년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안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

대학 입학 때까지 나를 승승장구하던 저의 인생은 대학시절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 한날 밤에는 신림동 산 위의 옥탑방에 누워 있다가 산소가 부족한지 숨이 턱턱 막혀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녹두거리 경사길을 한숨에 내리달려 도림천까지 이르렀는데, 막상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막막한 생각과 함께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때 즈음부터 저는 제 인생을 인도해줄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종교 관련 서적을 한동안 뒤적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어렵듯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그 속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생명과 평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말씀하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제 자신의 꿈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음에 품은 이후 처음에는 소싯적 꿈이었던 목사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다른 직업(vocation, 소명)을 찾으려고 했



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명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와 내적 갈등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소명을 받으신 분들—곧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귀한 분들을 섬기며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도록 돕는 일,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성취해 나갈 때 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바로 제 고유한 소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 소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형 목사>

알림

“생명사랑과 이웃사랑”의 사명을 위해 봉사하는 섬김과 나눔의 섬김이를 초대합니다!

(사)섬김과 나눔(회장 박원호 담임목사)은 2011년 5월 17일에 그동안 주님의 교회가 직접 실시해 온 늘푸른대학, 무료급식, 죽 배달, 특별구제 등 복지사업을 인수하여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3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업의 지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섬김과 나눔의 봉사를 원하는 분은 소관 사업팀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늘푸른대학 ☎ 봉사 안내 : 정원영 교무처장 (010-5339-6464)

- 입학 대상은 65세 이상의 주님의교회 교인 및 지역주민 200명 내외
- 학사 일정은 3/5- 6/25(1학기), 9/3- 11/26(2학기), 매주 화요일 10:00-14:30 개강
- 개강 일에 예배, 특강, 점심, 특별활동 등 개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봉사

▶ 무료급식 ☎ 봉사 안내 : 화요팀 조병길 팀장 (011-419-3050), 수요팀 강석인 팀장 (010-3717-9485)

- 송파구 마천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100명 대상
- 매주 화, 수(2회) 마천2동 남천경로당에서 불우한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식사 제공
- 매주 화, 수 2개팀으로 나누어 남천경로당에서 10무료급식 배식 및 설거지 등 봉사

▶ 죽 배달 ☎ 봉사 안내 : 이형구 팀장 (010-3711-3940)

- 송파구 마천·거여동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불우한 독거노인 대상
- 매주 월, 목 2회 결식방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죽을 제조하여 각 대상자에게 배달
- 매주 월, 목 2개팀으로 나누어 10:30부터 12:00까지 각 대상자에 죽 배달 봉사

교회단신

남천경로당 무료급식소 개소식



지난 1월 29일 송파구 관제자들과 봉사자,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가 참여한 가운데 마천동 남천 무료급식

소 개소식이 열렸다. 남천경로당 무료 급식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되며, (사) 섬김과나눔에서 주관하고, 주님의교회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80여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드리고 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주님의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긍휼과 감사와 축복과 부유함과 소망과 위로를 주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 하다고 말했다.

2013년 첫 사랑의 죽 배달



겨울동안 쉬었던 거여동, 마천1동과 2동 죽 배달이 3팀으로 나눠 1월 28일에 시작되었다. 지역 내 어려운 어르

신과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의 죽 배달은, 주님의교회 안수집사회에서 지원한 음식을 포함하여, 쌀 한 포대, 흰떡, 소고기, 만두 등으로 구성되어 설 명절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날씨는 차가웠으나 따뜻한 마음과 용솟음치는 사랑의 정열이 있기에 봉사자들은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무료 에어로빅 강습 열려



을 1월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역 공연무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에어로빅 강습이 주님의교회 부설 (사)

섬김과나눔과 종합운동장역의 협찬으로 열리고 있다. 늘푸른대학 한국무용 강사 이선민선생의 지도로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이 무료 강습에는 매 시간 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 참여 인원이 늘면서 새로운 지하철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함울함울>